



5월 21일  
금요일

# 보도자료

생명의 땅은 전남  
Land of Life, Best Jeonnam

실국	농식품유통과	과장	강 종 철	팀장	김 영 석	☎	286-6430
----	--------	----	-------	----	-------	---	----------

## 전남도,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구축지원 공모사업 선정

- 강진 쌀귀리사업단, 자립화 등 2년간 3억원 지원, 연계 공모사업 심사 시 가점 확보 -

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올해 ‘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’에 강진 쌀귀리 품목이 최종 선정돼 2년간 국비 1억 5천 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3억 원이 지원된다고 21일 밝혔다.

지역단위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쌀귀리, 유자 등 지역 자원 생산자, 이를 활용한 제조·가공업체, 체험·관광마을 등 네트워크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의 역량강화 및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육성하는 사업이다.

강진쌀귀리 지역단위 네트워크 추진단은 (주)남도농산을 주축으로 쌀귀리 생산자, 강진 푸소체험연구회, 초록민음직거래 지원센터 등으로 구성하고, 사업단의 역량강화 및 자립화 유도,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.

또한, 쌀귀리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및 현대인에 맞는 간편식품 개발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한다.

아울러, 농식품부가 지역자원의 생산, 가공, 유통 등 6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공모하는 ‘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’ 선정을 위한 심사 시 가점 3점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기회를 얻게되었다.

전남도 강종철 농식품유통과장은 “이번 공모선정은 강진 쌀귀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, 간편식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”라며 “연계사업인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 공모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쌀귀리의 유통판로 개척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